

‘보름달’ 같던 애정·관심이 ‘초승달’ 처럼 싸늘해졌더라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이 전한 추석 민심

신당 창당·농어촌 선거구 획정에 높은 관심

4일간의 추석 명절 연휴를 지역구에서 보낸 호남지역 의원들은 “지역 유권자들이 신당 창당 여부와 농어촌 선거구 획정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3면〉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과 단합을 주문하는 의견이 상당수였던 반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당을 떠나 차라리 신당을 창당해 새로운 시도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했다고 의원들은 밝혔다. 하지만, 정치권을 바라보는 지역 민심이 매우 약화했다는 데는 대부분 의견을 합쳤다. 온도 차만 있을 뿐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과거와는 사뭇 달라졌으며, 많이 싸늘해졌다고 전했다.

박해자(광주 서구 갑)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당 위원장은 29일 “화합도 못하지,

야당답게 정부와 여당을 상대로 싸움도 못하지, 도대체 잘하는 게 뭐가 있냐”는 질책을 수도 없이 들었다”고 말했다.

탈당과 신당 창당에 대한 민심을 해석하는 시각은 국회의원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무소속이었던 최근 탈당인 인사는 “새정치민주연합으로는 안된다”는 무용론을 강하게 주장한 반면 당내 일부 의원들은 ‘호남발 신당’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민심이 강했다고 전했다.

무소속 천정배(광주 서울) 의원은 “한국의 미래는 절망적이고 주된 책임은 박근혜 정부에 있다”며 “야당도 이대로는 미래가 없고 새로운 정치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민심이다”고 전했다.

반면, 박해자 시당 위원장은 “많은 지역 민들이 ‘신당에 대한 기대가 있었지만, 애

초 기대한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다”며 “현재로서는 마음을 들 곳이 없는 만큼 새정치민주연합이 당을 추스려 비전을 내놓아야 한다는 조언이 많았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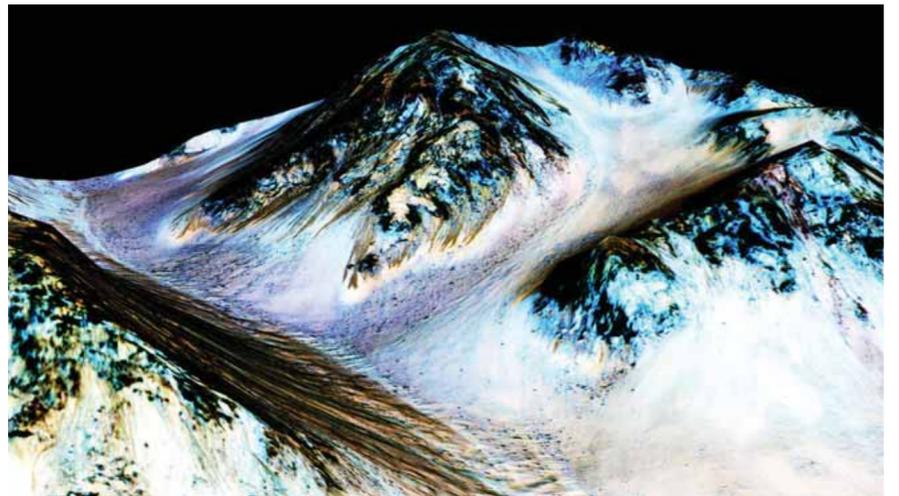
강기정(광주 북갑) 의원은 “(지역민심이) 새정치민주연합과 당내 친노·비노 간 싸움에 실망하고 있지만 신당 창당을 통한 국면 돌파나 새정치민주연합이 못한 일을 해보라는 뜻은 아닌 것 같다”면서 “야당의 단합과 혁신으로 위기를 돌파하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해석했다.

비노를 대표하는 주승용(여수울) 최고위원도 “당 분열은 안 된다라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며 “다만 신당 파괴력은 문 대표가 얼마나 잘하느냐에 달렸다. 당내 갈등이 겨우 봉합되고 있는데 혁신안 발표 이후 다시 요동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부 의원은 당내 문제보다 오히려 농어촌 선거구 지킴기 등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더 힘을 쏟아야 한다는 조언도 많았다고 민심을 전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화성에 소금물 개천... 외계 생명체 존재할까?



NASA, 2020년 탐사선 보내 확인키로

화성에 액체 상태의 물이 개천 형태로 지금도 흐르고 있음을 보여 주는 강력한 증거가 발표됐다. 이 발견은 화성에 외계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동시에 앞으로 인간이 화성에 살 수 있게 될 가능성도 보여 주는 것이어서 매우 주목된다. 화성 표면에 흐르는 물이 존재했던 흔적이 있다는 점은 2000년에, 얼음 형태로 물이 존재한다는 점은 2008년에 각각 밝혀졌으나, 액체 상태의 물이 지금도 흐른다는 증거가 제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2020년 화성 탐사선을 보내 화성 표면에 착륙시킨다는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화성 2020 로버 미션’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2면으로 계속

연합뉴스

광주·전남 내년 총선 경쟁률 5대 1

광주일보 출마 예정자 분석

광주 4.75대1, 전남 5.09대1

내년 4·13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광주·전남지역의 평균 경쟁률은 5대1 가량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일보가 지난 25일 그동안 출마 의사를 표명했거나 출마가 거론되는 예비 후보자들을 소개한 ‘20대 총선 누가 뭐냐’(광주일보 25일자 3·4·5면)를 분석한 결과 광주

는 4.75대1, 전남은 5.09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만큼 지난 19대 총선 기준으로 광주에서는 8개 선거구에 현역 의원을 포함해 총 38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서구 울과 남구, 광산 을이 각각 6명의 예비 선량들이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가장 치열한 격전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에서는 11개 선거구에 총 56명의 인

물이 거론됐다. 이 중 전남 동부권인 광양·구례 선거구와 순천·곡성 선거구가 각각 7명으로 가장 치열한 경쟁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 목포와 여수 갑, 고흥·보성이 각각 6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 추세대로라면 평균 3.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던 제19대 총선보다도 높고, 2000년 이후 총선거를 따져도 최고여서 후보들은 바늘구멍을 뚫어야 하는 치열한 선거에 맞닥뜨릴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2000년 이후 16년 만에 이뤄지는 선거구 재획정의 윤곽이 드러나지도 않은데다, 선거제도, 공천방식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고, 신당 창당 등의 변수까지 도사리고 있어 예비 주자들의 ‘마음 고생’이 과거 어느 선거때 보다 클 것으로 전망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김무성·문재인 ‘한가위 합의’

선거구 획정은 여전히 이견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지난 28일 부산 롯데호텔에서 긴급 단독 회동을 하고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의결한 안심번호 도입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을 합의 처리하기로 하는 한편 안심번호를 활용한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도입방안은 정개특위에서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회동 이후 문 대표는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는 선관위 주관으로 하되 일부 정당만 시행하게 될 경우 역선택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법으로 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신인들을 위해

예비후보 등록기간을 선거일 전 6개월로 연장하고 예비경선 후보물을 (배포할 수 있는 대상)을 전세대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신인·여성·청년·장애인 등을 위한 가산점 부과를 법에 근거를 두고, 불복에 대한 규제도 법으로 규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문 대표는 “선거연령이나 투표시각 연장, 투·개표의 신뢰성 확보,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와 지역주의 정치구도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더 협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선거구 획정문제를 10월 13일까지 결정해야 하는데, 저는 지금까지 주장해왔던대로 지역구를 늘리고 비

국민공천 ‘안심번호’란

정당이 당내경선에 필요한 선거인단을 모집하거나 여론조사를 할 때 휴대전화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이동통신사업자가 임의의 전화번호를 제공하는 제도. 역선택이나 동원선거의 문제를 보완할 수 있다.

례대표를 줄이자고 했다”며 “하지만, 문 대표는 비례대표를 줄일 수 없다고 해 진전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문 대표는 “그 문제(선거구획정)도 권역별 비례대표와 함께 연계해서 논의해야 한다는 게 제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당 대표의 회동은 김 대표의 제안을 문 대표가 받아들여면서 추진됐지만 이날 모임은 측근들도 모르게 갑작스럽게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경기자jkipark@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정시모집 | 062)605-1114

보험사기 고리 끊자 ▶6면

KIA 타이거즈 ‘5강 불발’

아직 꺼지지 않았다 ▶20면

시간을 거슬러 눈부시게 빛나는 길
헤라 에이지 리버스 쿠션

시간을 거슬러는 빛을 거머쥐고 피부에 닿을 때마다 빛나는 빛이 되게 하고 속에서는 어린 피부를 되찾아주는 에이지 리버스 쿠션. 눈부신 빛과 젊음 그 모든 것을 갖고 더 눈부시게

HERA